

다산포럼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자마자 국제사회는 요동을 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상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선택하였다. 과거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임기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중동의 '안정'을 취하는 한편, 반미 성향의 이란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이 트럼프 정부의 중재로 체결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아랍 4개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였다. 17기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공존보다는 이스라엘에 편향된 입장을 취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고 골란고원 등 분쟁 지역에 대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일(2025년 1월 20일) 5일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개월간 진행된 협상으로 맺어진 결실이었는 데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 역할이 도움이 되었다. 1, 2

트럼프식 평화의 특징과 가능성

단계에서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에서의 철수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는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 인도와 가자지구 재건이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휴전협정 이행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가자지구를 장악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데 주목하고 있다. 2월 4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소유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를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라고 묘사하고 미국은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 그 지역민들에게 수많은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재건 기간 중 180만 가자인들은 이웃 아랍 국가들로 이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 평화의 특징은 ① 협상보다는 힘에 의한 문제해결, ② 상업적 이익 추구, ③ 분쟁지역 대중의 이해 무시이다.

트럼프의 가자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는 대부분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가자 지구 주민들은 물론 아랍 국가들, 유럽연합,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자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은 그 규모와 일방성을 고려할 때 '인종 청소'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트럼프는 1기 대통령때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입장을 바꾸어버렸다. 트럼프의 가자 구상이 국제법 위반, 민족차별권 침해라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가자 구상을 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강변하지만 현재 트럼프 구상의 유일한 지지자는 네타냐후 총리이다. 네타냐후는 트럼프 구상을 '역

사를 바꿀 사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구상을 지지함으로써 그는 중전시 상황을 만들어 평화시 다가올 정치적 근경을 지연시킬 속셈이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정 발표(1월 19일) 이후에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 2주 동안 50여 명의 사망자와 민간시설 피해가 발생하였다. 트럼프는 다음에는 서안 지구에 대한 구상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중단시킬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유리한 전세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제재 카드를 흔들며 종전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종전 요구는 불공정한 압박으로 다가간다. 이미 서방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빼앗긴 영토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종전을 압박하면서 희도류와 같은 광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거기에서 목숨과 재산, (반려)동물, 그리고 자연환경을 잃은 전쟁 지역 주민들 대한 관심은 찾을 수 없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는 사이다", "북한에 개발할 해안가가 많다"고 한 발언에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평화가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어떤 평화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의 종류가 많고 거기에는 우선적이나 기만적인 평화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평화든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평화를 가려서 볼 지혜가 필요하다.

청춘 특독



김해연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3학년

길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 무심코 틀어놓은 수돗물, 쉽게 버려지는 음식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모이면 그것이 결국 지구를 병들게 한다. 반대로 반듯한 습관들이 모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다.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는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여름에도 열음이 녹지 않던 북극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미세먼지 문제 등은 기후 변화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지만 도시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에 '이 큰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갖게 된다.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나 기업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세우고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인간이지만 해결의 열쇠 역시 인간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점점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많은 카페들이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아예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를 받지 않는 선택도 보편화되고 있고 패스트패션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고 의류를 사고파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만 실천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먹는 음식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다. 육류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전한 채식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고기 없는 월요일'(Meet Free Monday) 같은 작은 실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사람이 평생 채식을 하면 자동차를 11년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물론 개인의 실천만으로 기후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와 기업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 역시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서 출발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면 기업은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정부 역시 더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흐른다. 우리가 먼저 변화해 사회도 변화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거대한 문제이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환경을 위한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은 무엇일까? 아마도 텀블러를 챙기는 것,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아닐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거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기고

스포츠, 광주의 문화가 되고 관광을 이끈다



정은성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며,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광주시 역시 스포츠를 통해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스포츠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다. 광주는 이미 야구, 축구,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경험 등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삿포로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관광 명소를 발전시켰고 바르셀로나는 1992년 올림픽 이후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는 스포츠를 지역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렵게도 광주는 스포츠 문화를 관광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 예로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팬 투어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테마

관광 코스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스포츠를 지역 문화의 핵심 요소로 삼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광주에서 스포츠가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گیا 타이거즈다. گیا 타이거즈는 광주 시민들에게 단순한 프로야구팀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자리잡으며 광주의 자부심이 되었다. گیا 타이거즈의 흥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챔피언스필드는 붉은 물결로 가득 차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광주의 거리는 팬들의 함성과 열기로 뜨거워진다.

하지만 광주는 이 뜨거운 야구 문화를 아직 관광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야구를 지역 관광과 연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경기 관람과 함께 광주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장 주변에 گیا 타이거즈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야구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야구뿐만 아니라 광주FC를 중심으로 한 축구 문화 역시 지역 관광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을 방문하는 '스포츠 투어리즘' 모델을 참고하여 경기 전후로 팬들이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광주FC는 최근 K리그에서 선전하며 지역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축구 전용구장을 활용해 축구 경기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광주를 방문하는 축구 팬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광주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

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이다. 이 대회들을 개최하면서 광주는 국제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역량을 증명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대형 스포츠 행사가 끝난 후 지속적인 스포츠 관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국제 대회 개최 이후 경기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부족했던 것이다.

광주가 스포츠 문화를 기반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대학, 기업, 스포츠 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گیا 타이거즈와 광주FC, 광주체육회 등 지역 스포츠 기관과 연계해 스포츠 팬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해 스포츠 이벤트와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모델을 구축하여 광주만의 차별화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گیا 한다.

광주는 예술과 민주주의 정신이 깃든 도시다. 여기에 스포츠 문화를 결합하면 광주는 더욱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스포츠가 곧 광주의 문화가 되고 나아가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 테마 축제 개최, 지역 스포츠 스타와 연계한 이벤트 개발, 경기장과 지역 명소를 연계한 관광 패키지, 스포츠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의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社說

지방자치 30년...수도권 집중화 막지 못했다

올해는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지방자치 시대 3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는 주민들의 선출권 보장과 지방의회와 입법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지 못해 오히려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몇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30년은 훨씬 많은 과제를 안긴 것이 사실이다.

선출권만 지역 주민에게 부여하는 현재의 반쪽짜리 지방자치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힘들다. 특히 민주당 일당 독점이나 마찬가지로인 광주-전남의 정치 구도에서는 정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진정한 지방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중

양정부로부터 입법·행정·재정에서 독립하지 못한다면 지난 30년간 강화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역 관점에서 볼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소멸이다. 인재와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고령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은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밖에 없다. 마침 정치권에서 1987년 체제의 한계에 따른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계에 달한 대통령제를 개편하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역 입장에서 차제에 지방분권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

어렵게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지역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지방분권 개헌의 절호의 기회다.

의료 공백 메우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환영

한밤중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이 큰 역할을 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오후 6시, 주말에는 오전 8시30분에 문을 연다.

광주시는 현재 남구의 광주기독교병원과 광산구의 광주센트럴병원 등 두 곳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중인데 대 지역에서도 개인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광주시가 상반기 중 아동 인구가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키로 하고 현재 북구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중이어서 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서 가장고 평안한분위기에서 진료를 받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비가 1~2만원 수준으로 10만원에 달하는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병원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표를 뽑는 '오픈런'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2023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기독교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29명, 휴일에는 113명이 방문했으며 광주센트럴병원도 7개월 동안 2만 728명이 진료를 받는 등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365일 연중무휴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 심야약국도 늘어난다. 광주시는 현재 6곳인 공공 심야약국을 광주센트럴병원과 북구 소재 아동병원에 추가로 두 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은 사각지대인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광주시는 달빛어린이병원 개원과 심야약국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無等鼓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급등했다. 지난 9일 시청률도 6.2%로 아시아계급 시청률(4.6~4.8%), 예능프로 런닝맨(4.4%)보다도 높았다. 1~2%대에 머물던 'PD수첩'도 2배 이상 뛰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지난 9일 시청률은 2.2%였다. 한 때 자체 최고 시청률 32.3%(2003년 8월 31일)를 기록했던 지상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영화를 압도하고 코미디보다 더 웃기 야심작이 매일 현실에서 전파를 타고 있는 건 맞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피고인은 남미 마약 갱단같이 공권력에 저항하는 활극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헌법재판소에서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니 인원이라는 말을 써볼 적이 없습니다"고 했다가 약 1분 뒤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며 '인원'을 남발해 국민을 웃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며 '의원', '요원' 단어를 핫 검색어로 띄웠다.

"정치는 한마디로 코미디였습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많은 코미디를 공부하고 갑니다"고 했던 코미디언 출신 국회의원 정주일씨 말이 딱 들어맞는 요즘이다.

영국 저널리스트 제임스 볼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책에서 "진실의 더 큰 적은 거짓말보다 개소리"라고 지적했다. 개소리꾼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유

리한 발언을 할 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가. 그래서인지 "헌법 조항에만 의존해서는 민주주의를 잠재적 독재자의 횡포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고 한 스티븐 레비츠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지적을 흘려넘기기 쉽지 않다.

버티기 힘든 적나라한 현실이 지배하는 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